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원산지, ‘조작의힘’입니까?]

– 국민을 속이기로 작정했다면, ‘조작의힘’으로 당명을 바꿔야할 것입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커피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슬그머니 내린 내란선동 극우세력의 허위조작 글을 김문수 후보의 공식 캠프가 카드뉴스로 제작해 유포하고 있습니다.

최초 이 허위조작정보 유포자는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 받을 수 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8천원이 남는다고요?”라며 판매가를 순이익으로 새빨간 거짓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허위조작정보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게 허위사실 공표죄 등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1인 3억으로 허위조작정보를 만들고 유포한 소위 ‘평택에서 카페하는 준우 아빠’의 SNS 계정에서 부정선거음모론 관련 자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Yoon Again 운동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올린 허위조작정보의 출처가 내란선동 극우세력 구성원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김 후보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18일 당일 김 후보가 허위조작 글을 내렸지만, 다음날 19일 김문수 후보 공식 캠프인 홍보본부 뉴미디어소통단이 이 허위조작 글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퍼뜨렸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김문수 캠프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해당 글이 가짜뉴스인 줄 알고도 의도적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유포한 것입니까?

이쯤되면, 공범 아닙니까? 작정하고 국민 속이겠다 마음 먹은 것 아닙니까?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의 사실상 ‘여론공작팀장’으로 보이는 이영수 씨가 김문수 캠프에 합류한 것을 두고, 여론조작과 신천지 유착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것을 김문수 후보에게 촉구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영수 씨가 광화문 ‘태극기부대’ 인사들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핑계로 김문수 선대위에 불참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다시 합류 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한 극우 유튜버가 국민의힘과 김문수 캠프 관계자들의 고발사주를 폭로한 적이 있는데, 고발사주가 제대로 안되니 셀프공작 입니까?

국민의힘의 선거전략이 ‘선거공작’, ‘여론조작’, ‘네거티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 공보단